밀착형 서비스 OK

3월 한달새 부산 불교계복지관 분원 2곳 개소 이어져

4월 5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짜장면데이'.

'불심도시'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관들이 불교수행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4월 5일 관내 식당에서 '사랑의 자장면데이' 행사를 마련해 지역 800여 어르신에게 특별한 점심공양을 대접했다.

복지관은 평소에도 하루 평균 150명 내외의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공양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년에 3~5차례는 지역 내 중식(中食)봉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자장면, 삼계탕 등의 특식을 제공한다.

양지현 사회복지사는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는 많은 불자 사회복지사들이,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기관 및 시설을 설립하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무료공양 서비스를 하면서 불교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부산사회복지기관협회 회장)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정신적인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해답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다. 복지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소양을 기르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 혜원정사 주지) 산하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 스님)은 1일 달리는 이동복지관 '달려라! 영.노.복(영도구노인복지관)'을 개소했다. 영도구에서는 유난히 가파른 경사와 굽은 길이 많아 복지관 왕래가 어려운 경로당 및 홀로어르신들이 많았다. 이동복지관은 이동복지관 담당자 및 물리치료사, 지역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발빠른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게 됐다.

이동복지관은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지원서비스 (물리치료, 활력증후 등 혈압, 체중, 혈당 체크, 건강체조, 무료건강검진 및 교육) △정서지원서비스(정서상담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위생청결지원서비스(이미용서비스, 고운손 손질, 피부마시지, 세탁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이사장 정여, 범어사 주지) 산하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순화) 분관인 '가마실복지센터'가 3월 31일 개관식을 가졌다. 금정구는 유난히 넓은 탓에 전 지역구가 고르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곡동과 서동, 장전동을 아우르는 분관을 개관한 것. 가마실 복지센터 개관으로 금정구 지역민에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원 기자

팔관회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부산불교聯, '고려팔관회 현대적 재조명'

"팔관회는 사찰단위로 거행하기에 어렵다. 고려팔관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당당한 불교문화로 거행되어야 한다."

고려팔관회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前 신라대 총장 법산 스님은 고려팔관회의 문화재 지정을 주장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팔관회는 불교행사에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통문화로서 고려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을 위해 고려대장경을 주도했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 뜻을 현대에서 재현하고 부흥시켜 세계를 향한 도약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4월 7일 벡스코(Bexco)에서 '고려팔관회의 종합적 고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팔관회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계승·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정각 스님(부산시불교련 상임부회장, 일붕선교종정)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안지원 교수가 '고려팔관회의 교리적 배경'을 △신라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배상현 교수가 '고려팔관회의 역사적 전개와 그 추이'를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최영호 전문연구위원이 '팔관회의 국가사회적 영향'을 주제발표했다.

또 前 신라대 총장 법산 스님(원효정사 주지)을 좌장으로 김광철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 최연주 동의대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엄경흠 신라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현재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불교문화엑스포는 불자들의 서원을 다짐하는 팔관재계 수계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학술강연,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작년부터 팔관회를 부산시 규모의 불교문화축제를 넘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광명사, 종합불교회관 낙성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신행활동 전용관

부산지역에 천태불교가 뿌리내리는데 초석이 된 광명사(주지 화산, 삼광사 주지)가 종합불교회관(사진)이 3년 여 불사를 마치고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명사는 4월 6일 종합불교회관 앞 특설무대에서 대광명전 삼존불 점안 및 종합불교회관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한 종합불교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107㎡(약 1543평) 규모로, 대규모 법회는 물론 신도 교육관과 템플스테이관, 각종 신행활동 전용관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광명사는 1969년 10월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의 한 가정집에서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대조사와 함께 부산신도회 창립법회를 올렸다. 이후 1973년 동래구 장전동에 광명사라는 이름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1986년에는 부산진구 초읍동 백양산 기슭 3만 5000평에 연면적 2만 937㎡(약 6754평)의 대가람 삼광사를 이룩했다.

주지 화산 스님은 "광명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불교회관의 낙성은 부산지역 천태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은 불사가 됐다"며 "법음을 갈망하는 이들의 신심과 열성 속에서 종합불교회관 불사를 원만회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부산 반송동 원오사 주지 정 관 스님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5시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절 마당이 가득 찬다.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도, 봄빛이 내려앉은 뒷산도 천진불들의 맑은 기운에 어깨를 들썩일 정도다. 아이들은 스님을 보고도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부산 반송동 원오사 지주 정관 스님(사진 왼쪽)에게 성큼 다가가 그날의 학교생활을 종알종알 풀어놓는다. 이는 3년 전 부산 반송동 원오사에 '꿈나무공부방'이 들어서면서 생긴 변화다.

"처음 공부방에 왔을 때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다소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기색이 역력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온 도량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수업시간에 씩씩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지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제가 고마워합니다."

현재 '꿈나무공부방'에는 중학교 1학년 4명, 2학년 2명 등 총 6명이 공부하고 있다. 2009년 3월 창립 당시 20여 명이었으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 면접과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총 6명의 학생만 '꿈나무공부방'을 최종 합격 시켰다.

공부방은 지역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든솔학교' 졸업을 앞든 초등학교 6학년생의 거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정관 스님과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조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쓸쓸히 방치되던 어린이들이었다. 6학년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규정상 6학년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든솔학교를 자동 졸업해야 했다.

정관 스님은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이던 한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알아가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기 시작했다"며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전교 5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 되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회를 통해 꾸준히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부방 아이들의 꿈은 지나치게 소박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식당이나 슈퍼마켓 주인이거나 없다. 또래 아이들이 대통령, 연예인, 외교관, 과학자, 사업가 등을 꿈꿀 때, 스스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잘 알기에 꿈나래를 펴기도 전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학업 뿐 아니라 인성을 닦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중에는 현직 학원강사들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가 중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나 봉사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교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수업 전 아이들은 스스로 법당에 올라가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갖춘다. 도량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운력에도 열심이다. 경내에서 마주치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께도 '보살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넙죽 합장반배를 하는 모습은 이제 어엿한 천진불의 모습이다. (051) 542-7949

박지원 기자

한나래문화재단-신라대, MOU 체결

불교국가 교환학생 장학금 전달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과 신라대(총장 정홍섭)는 4월 6일 신라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업무제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현재 신라대에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불교국가의 외국인 교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및 숙소, 생활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증대, 상호 국제네트워크 교류 협력, 학술자료 교류 및 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홍법사 신도와 외국인 장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해 신행활동 정보공유 등을 실시한다.

심산 스님은 "종교적 역할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원 기자

석암장학회 제73회 장학금 전달

불자학생 113명에 총 6억원 지급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 내원정사 주지)는 4월 3일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73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정련 스님은 동국대 재학생 12명에게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대한불교석암장학회는 1971년 故석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까지 40년간 총 73회 동안 1113명의 장학생에게 5억 37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박지원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욕바라, 신중작법봉청39위, 욕건이,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법고춤, 괘불이운
■ 강 주 : 교무국장 성우스님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불교미술학인모집

◐ 교육지표 :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 교육과정(2년제)

1-1	1-2	2-1 2-2
• 불화기초(Ⅰ) 시왕초 등긋기	• 불화기초(Ⅱ) 보살초 등긋기 사천왕초 등긋기	불화 그리기 불화실습(Ⅰ,Ⅱ)
	• 채색 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 단청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 강 주 : 혜경스님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 공통사항
■ 수시모집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종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